

대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이죠?
선생님이 오랜만에 다시 팟캐스트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제 20대를 돌이켜보니까
전부 여행으로 채웠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했고
아직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 25개? 25개 정도 나라를 여행했어요
이렇게 제 20대를 여행으로 꽉꽉 채우면서
제가 정말 많이 변했고
느낀 것도 많았고
안 좋은 것도 많았어요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났고
조금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일들과
또 제가 4개의 다른 나라에서 살아봤어요
이런 거를 살면서 있었던 일들
어떻게 제가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행,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바뀐 거는요.
바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제 초연하게, 초연하게 넘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제가요 일단 정말 덩벙대요.
성격이 덩벙대는 편이고
제가 여행을 할 때 항상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해외여행, 대만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서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합니다.
가방에 있던 휴대폰이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을 휴대폰 없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매치기를 4번, 5번 당했었어요.
휴대폰을 4번 정도 잃어버렸고
지갑을 2번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죠.
너무 당황하고
나 휴대폰 없이 구글맵 없이 어떻게 여행하지?
아 나 완전 망했다. 이랬는데
이제 제가 휴대폰을 두 번째 잃어버리고
세 번째 잃어버리니까 사람이요.
그럴 수 있지.
난 내가 잃어버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백업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계획이 없고
덤벙대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소매치기를 많이 당하고
물건을 잃어버리면서
성격이 약간 꼼꼼하게 바뀌었어요.
좋은 거죠.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가고
나 휴대폰 잃어버리니까
무조건 휴대폰은 두 개 들고 가자.
지갑도 자주 잃어버리니까
카드도 무조건 3개는 들고 가자
이렇게 준비성이 좋아졌습니다
준비도 좋아지고요
또 처음에는 이렇게 아 어떡해
나 휴대폰 없어 지갑 없어
막 저도 경찰서 가고
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 그런 태도가 사라졌어요

대분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응 괜찮아
어 그럴 줄 알았어
휴대폰 사라질 줄 알았어
이렇게 사람이 되게 덤덤해졌어요.
덤덤해지고 많이 패닉 안 하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이런 태도, 좋은 태도죠.
이런 태도를 갖게 됐어요.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게 됐어요.
제가 비행기도 정말 많이 놓쳤거든요.
세 번 정도?
비행기를 놓쳤어요
한 번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차 렌트를 했었어요
근데 차 주차를 했었는데
거기가 낮에는 주차를 해도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저녁 8시쯤에 주차를 하고?
자러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사라졌어요.
근데 3시간 뒤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너무 당황스럽고 막 울었어요.
친구랑 안고 막 울었는데
그때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줬어요.
전화도 해주고 보니까
이 차가 견인, 견인이 됐어요.

저희가 주차를 잘못해서
차가 견인이 돼서
이렇게 차가 어디에 갔었어요.
그때 그 이탈리아 분들이 다 전화해 주시고
저희 차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차를 1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벌금 냈어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벌금 뭐 냈고,
차를 한 시간 만에 찾아서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비행기를 10분 전에 탔습니다.
10분 전에 탄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비행기를 안 놓쳤네요.
근데 제가 다른 거 하다가
비행기도 많이 놓쳤어요.
근데 그런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올라가고
무슨 상황이 생겨도
약간 당황하지 않고
아,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이탈리아 분들은
아직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친구랑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쿠키 갖다 주시고
디저트 갖다 주시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와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 최고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었고
이런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저희 멘탈 멘탈이 아주 강해지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조금 생기고
이제 쉽게 울지도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너무 너무 당황하지 않아요.
가끔은 조금 당황을 해야 하는데
지갑 없어져도 뭐 아 괜찮아 휴대폰 없어도
뭐 아 괜찮아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들도 좀 많았어요.
제가 남미에서 살고
남미 여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했었어요.
이게 이 물이 페루 사람들에게는 2,000원인데
저한테는 3,000원인 거예요.
제 친구가 가서 사면 2,000원인데
제가 가면 막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되게 소심했어요.
이렇게 말 잘 못하고
문제 있어도
아, 어떡해 이런 성격이었는데
제가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아니 내 친구한테는 2,000원 물 팔아놓고
왜 나한테는 3,000원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아무 말도 못하던 저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저한테 계속 돈을 더 받아가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더 멘탈이 강해졌습니다.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저한테만 계속 더 비싸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게 됐습니다
또 제가 페루에 살았을 때
제 첫 번째 집에서
제가 한 5개월 정도 살았었는데요
그 집주인이 제가 딱 5개월 살고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저보고 제가 집을 다 더럽혀놨다.
이 집은 이제 쓸 수 없다.
내가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돼.
페인트 다 다시 해야 돼.
이러면서 제 보증금을 아예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보증금이 그때 두 달?
두 달의 월세였거든요.
조금 됐어요.
한 백만 원?
100만 원 정도 보증금이었는데
저한테 제가 집을 너무 더럽혀놨아서
집 이거 다 고쳐야 된다고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5개월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집 하나도 안 더러웠거든요.
저 맨날 청소하고
그냥 이 사람은 제 돈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제 돈을 써서 집을 고치고 싶었는데
이게 원래 저였으면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이씨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못해 나 말 못해

대분

이런 성격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단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매일 전화하면서 아니 뭐가 더럽다고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너는 그냥 내 돈을 써서
너가 리모델링 하고 싶은 거잖아
막 이렇게 싸우고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매일매일 울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조금 더 강해졌다
옛날에 나였으면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많이 단련 됐어요
이게 아주 강하게
내가 여기서 강하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내 돈이 다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주 강한 사람으로 아주 단련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지.
조금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지 않았다면 못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하게 다양한 사람도 만났고
이런 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저의 생각들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특히 한국이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저희는 다양성이 별로 없어요
아직 외국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살고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저도 20대 때까지는 그런 똑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외국인들은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배웠어요
제가 좀 더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었죠.
좋은 쪽으로 오픈 마인드도 됐고
이런 다름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다양성도 볼 수 있게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대학이나
직장이나 연봉으로 판단을 해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나 학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것.
첫 번째 질문이 너 어느 회사 다녀? 가 아니고
너가 좋아하는 건 뭐야?
너의 취미가 뭐야?
이런 질문들로 바뀌게 된 거?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다르거든요.
보통 일 얘기 많이 하고 학교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대분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랑 다른 점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도 느꼈고
그렇게 저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진 거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행을 하라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행을 해도
2일, 3일 이렇게 짧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가서 진짜 문화도 느껴보고
현지, 현지 사람도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제가 제일 최근에 느낀 건데요.
너무 여행만 보고 사는 것도 좋지 않다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여행을 조금 더 많이 한 편이죠.
저는 20대 때
정말 여행, 여행만 보고 살았어요.
학생 때도 학교 다니면서
항상 알바를 두 개, 세 개 하면서
여행하려고 계속 돈을 모으고
공부 많이 안 하고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갔어요.
저희 목표는 항상 여행,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일 많이 해서 돈 모으고 여행 가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여행 가야지.
그래서 현재를 많이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 여행해야 되니까
지금은 계속 알바해야 돼.
일해야 돼.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모은 돈을 다 여행에 썼어요.
그거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데
저는 20대 때 제 10년 동안 제 목표가 여행이었어요.
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살거나
계속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많이 가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살아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여행이 재밌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옛날처럼 너무 여행이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여행이 제 도피처였어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여행해야지.
지금만 조금 더 희생해서 여행할 거야.
이런 생각도 많았고,
특히 제가 한국에 사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한국 너무 싫어. 해외가 최고야.
외국에 있는 게 더 좋아.
완전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이 싫고, 현재가 싫고
빨리 어디 가지? 다른 나라 가야 돼.
이런 생각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이 별로 재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여행,
다른 나라 가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크지 않으니까
이제 뭘 보고 살아야 되지?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사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약간 피곤해졌어요

대본

이 제가 내 집이 없는 거예요
술 곳이 없는 느낌
정착할 곳이 없는 느낌이고
계속 이사 가는 게... 진짜 피곤해지고
아 약간 집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 사는 법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계속 이사하고
계속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법을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니까,
여행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지?
이런 고민도 생깁니다.
제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 산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 제가 이렇게 한 곳에서 사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여행 말고 다른 취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렵고
이제 여행 말고 뭘 보고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극단적이죠
정말 이사를 많이 했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살아서 겪었던 문제 같은데
이런 너무 여행만 보고 사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국에서 사는 법
한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행보다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인데요
아마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일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여행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외국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한국 너무 싫어.
외국 너무 좋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팟캐스트가 조금 길어졌죠.
선생님이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관련 에피소드도 많이 있고
제가 느낀 점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나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어요?
이런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여행을 많이 하면서
무엇을 느꼈고 뭐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들고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다들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